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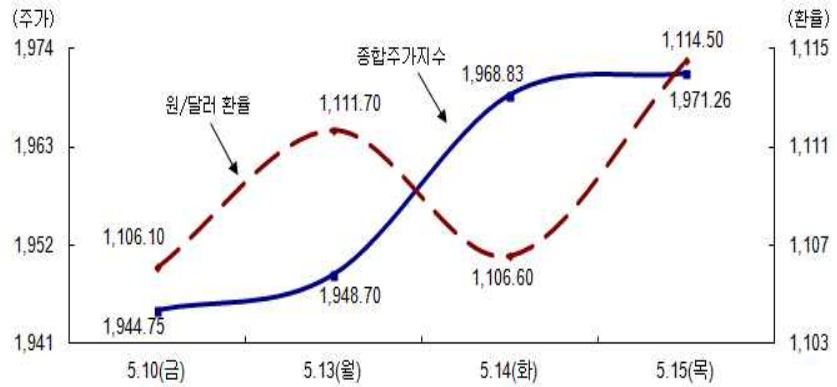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제고 가능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10~5.1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0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대표 집필 :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Executive Summary

□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제고 가능

■ 경제활동 참가의 높은 성별 격차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66.2%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2.5%p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OECD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70.6%로 높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7.7%p로서 우리보다 작다.

■ 여성 경제활동의 문제점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선진국과 비교해 2011년 기준 7%p 낮은 수준이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이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고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이 두드러져 인적자본 투자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2010년 기준 60.1%로, 미국 76.2%, 독일 82.8%, 덴마크 84.3%, OECD 평균 78.7%에 비해 매우 낮다. 셋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중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같은 학력 수준의 남성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나타내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감소세는 남성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의 긍정적 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출산율 제고로 이어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늦추는 효과를 나타낸다. 국가별 횡단면 분석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0%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2~0.19 증가(현재 1.3수준에서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노동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잠재성장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 증가가 둔화되는 시점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생산가능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초래한다(본문 6쪽 우하단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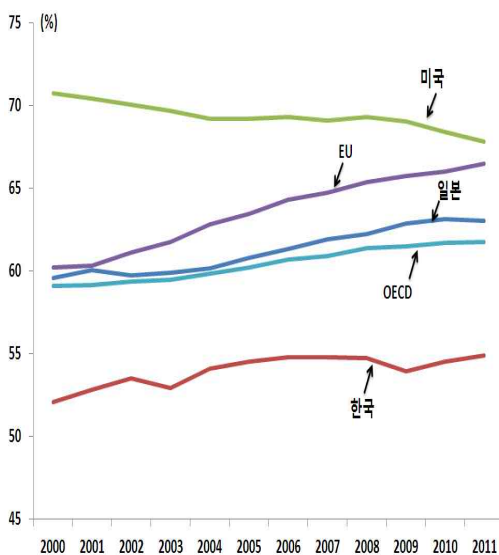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과제

출산율을 높여 고령화 속도를 낮추고, 저성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등 여성 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법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경제활동 참가의 높은 성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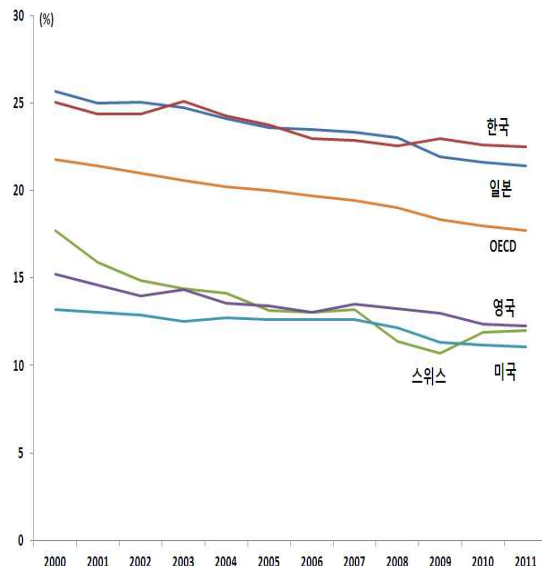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저조하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수준
 - 한국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20%p대 이상으로 선진국의 10%p대 수준에 비해 높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해 2011년 기준 7%p 낮음
 - 한국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각각 66.2%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22.5%p로 매우 높은 수준
 - 한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54.9%로 일본 63.0%, 미국 67.8%, EU 66.5%, OECD 61.8% 대비 매우 낮음
 - 한국 남성경제활동참가율¹⁾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매우 낮아서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크고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 반면에 OECD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70.6%로 높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7.7%p를 나타냄
 - 일본은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이 2011년 기준 84.4%로 매우 높아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크게 존재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 OECD
주 : 15-64세 기준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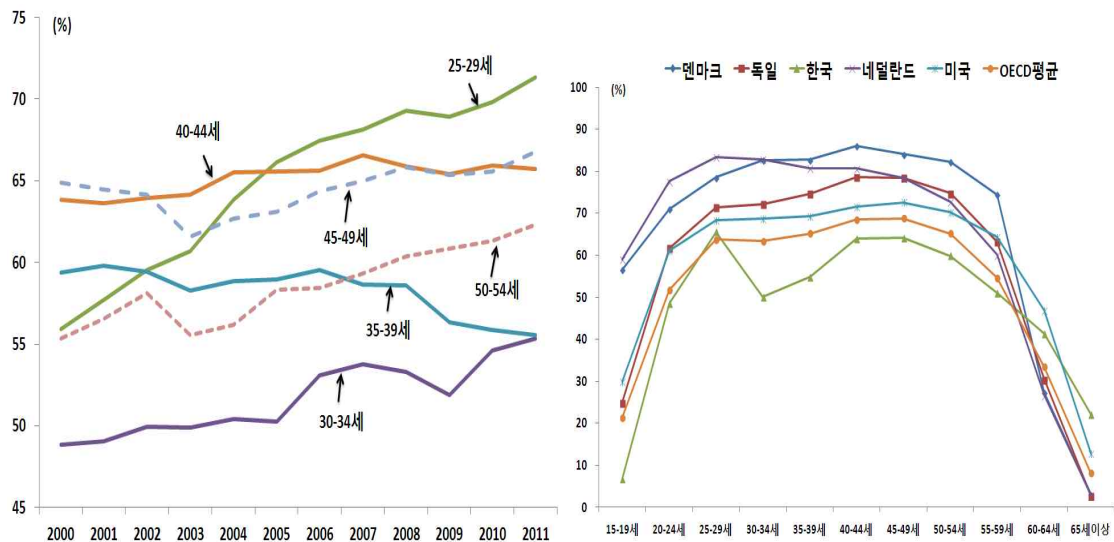
자료 : OECD
주 : 15-64세 기준

1)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기준)은 2011년 기준 한국이 77.4%로 일본 84.4%, 미국 78.9%, EU 79.2%, OECD 79.5%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님.

2. 여성 경제활동의 문제점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하고 출산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두드러짐
 - 한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이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30-34세 한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또한, 35-39세 한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두 번째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을 나타냄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특징은 출산 양육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여성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경력단절이 두드러진다는 것임
 - 국내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는 30~40대를 최저점으로 하는 M자 커브 형태를 보임²⁾
 - 결혼 연령기인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출산·육아기인 30~34세에 최저점으로 하락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나타냄
 -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고용률이 유지되며 역U자 형태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M자 형태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임

<한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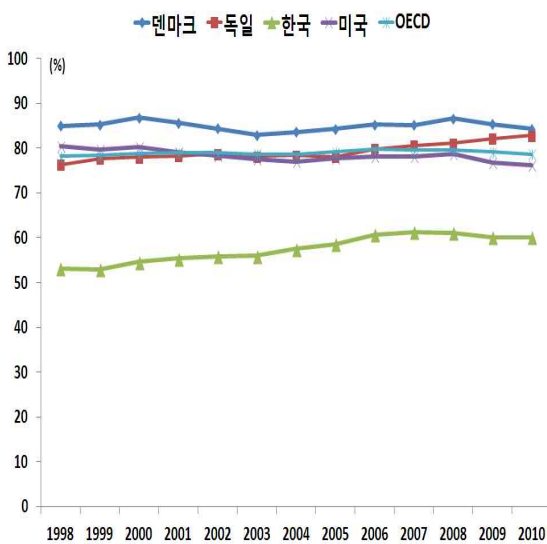
자료 : OECD
주 : 15-64세 기준

2) 만혼, 노산 등으로 M자 형 곡선의 최저점이 1990년대에는 25~29세였으나, 2000년대에 30~34세로 이동

○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고,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최근 악화되어 인적자본 투자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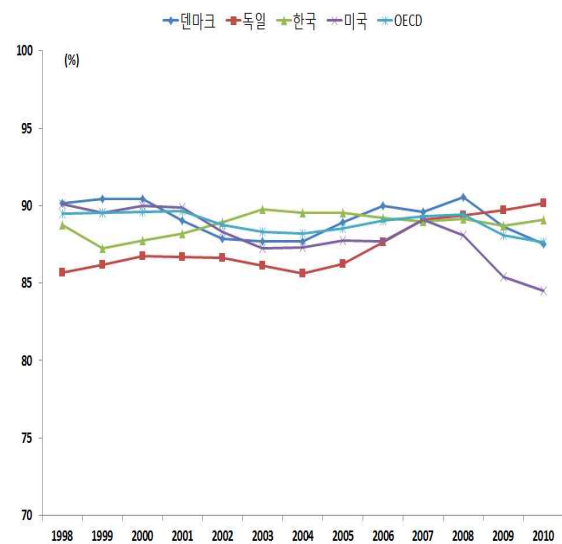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25~64세 여성 인구 중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2010년 기준 60.1%로, 미국 76.2%, 독일 82.8%, 덴마크 84.3%, OECD 평균 78.7%에 비해 매우 낮음
 -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2005년 58.5%에서 2007년 61.2%로 상승하였으나 2010년 60.1%로 다시 하락하며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정체 상태
- 반면에 우리나라의 25~64세 남성 인구 중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한국의 고학력 남성의 고용률이 2010년 기준 89.1%로, 독일 90.1%에 비교해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84.5%, 덴마크 87.5%, OECD 평균 87.6%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한국의 고학력 남성의 고용률은 2005년 89.6%에서 2007년 89.0%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89.1%로 소폭 상승

<OECD 주요국의 고학력 여성 고용률>



자료 : OECD
주 : 25~64세 기준, Tertiary education 기준

<OECD 주요국의 고학력 남성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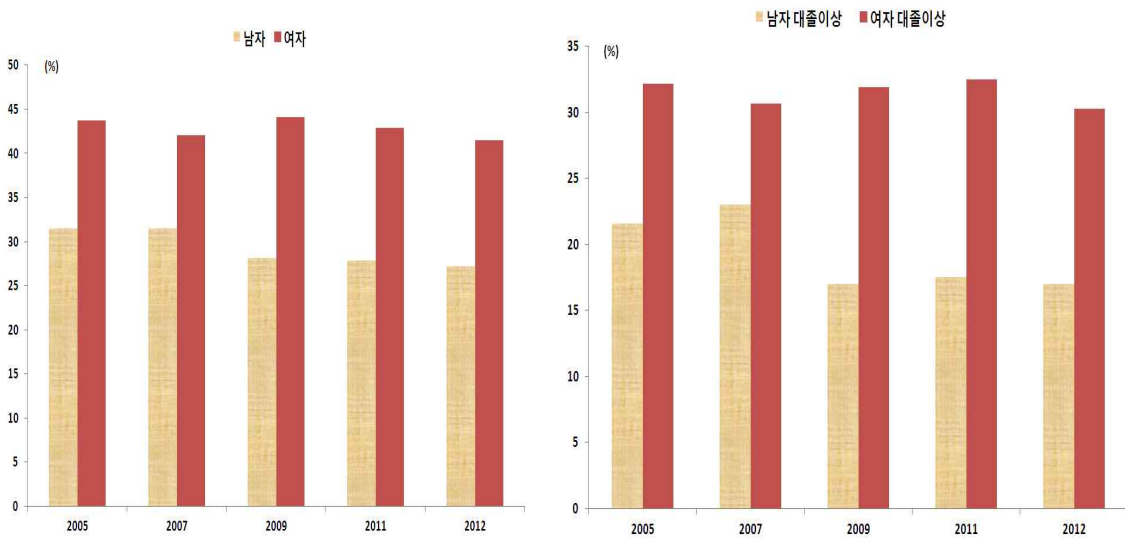


자료 : OECD
주 : 15~64세 기준, Tertiary education 기준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중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같은 학력 수준의 남성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나타내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감소세가 남성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

-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비정규직 비중의 감소세도 남성에 비해 미미한 수준
 -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2005년 31.5%에서 4.3%p 감소하여 2012년 27.2%로 감소.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2005년 43.7%에서 2.2%p 감소하여 2012년 41.5%로 감소
 - 대졸이상 여성 임금근로자 중³⁾ 비정규직 비중이 2012년 30.3%로 2005년 32.2% 대비 1.9%p 감소하며 감소세를 나타내지만 2012년 기준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에 비해 1.8배 높은 수준임
 - 대졸이상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2012년 17%로 2005년 21.6%에 비해 4.6%p 크게 감소하여 여성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개선되는 정도가 매우 빠름
 - 이는 고학력 여성일지라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노동시장 복귀 시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나타냄

<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 < 고학력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8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을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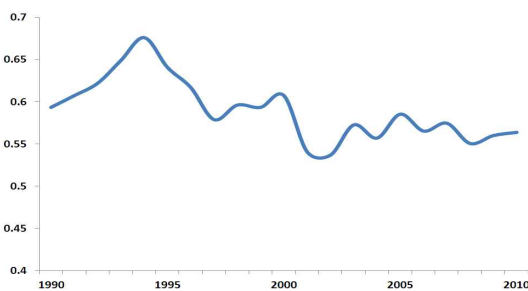
3) 학력별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분석해 보면, 모든 학력 계층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이상의 학력 계층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에 비교해 초졸 이하 및 중졸 학력 계층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3.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의 긍정적 효과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출산율 제고로 이어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늦추는 효과를 나타냄

- 국가별 횡단면 분석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선진국에서 1980년 이전에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과의 관계가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1990년 이후 양(+)의 관계로 전환⁴⁾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최소자승법(OLS)과 2)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흔히 여성경제활동참가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OECD 국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합계출산율도 높음
 -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와 양성평등의 고용 문화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음⁵⁾
 - 분석결과,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0%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12~0.19 증가(현재 1.3수준에서 1.42~1.4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⁶⁾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 상관계수⁷⁾>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⁸⁾>



자료 : OECD

분석 방법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β_3)
최소자승법	0.0122*** (0.0027)
고정효과	0.0186*** (0.007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4) Ahn, Namkee, and Pedro Mira.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2002): 667-682.

5) Da Rocha, J. M. and Fuster, L. (2006)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여성 실업은 가계소득을 낮추고, 낮아진 가계소득은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게 되는 이유로 설명함. 또한, 류연규 (2005)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그 자체는 근본 원인이 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 모성휴가·부성휴가·육아휴직·보육시설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충 관계를 완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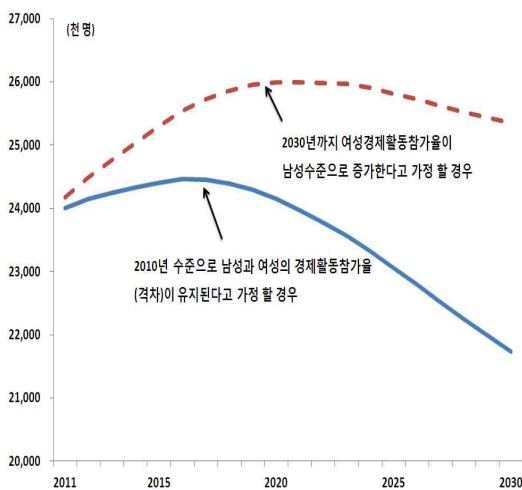
6) 2012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1.3.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0%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1.42~1.49로 증가

7)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계수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24개 국가임

8)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분석에서 룩셈부르크의 남녀임금격차 데이터가 없어서 총 23개 국가만 분석함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생산가능 노동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나타냄
 - 고령화로 인해 노동투입 증가가 둔화되는 시점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생산가능 노동력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성장률 상승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초래함
 -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 심화로 인해 2018년 이후 근로 연령층이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어 우수한 젊은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3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노동력 규모는 2천 536만 명으로 추계됨 (363만 명 증가)
 - 하지만, 2010년 수준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노동력 규모는 2천 173만 명으로 추계됨
 - OECD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2030년 까지 끌어올리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

<한국의 노동력 규모 추계>



자료 : OECD
 주 : 「Closing the gender gap : Act now」, 2012. 12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계>

시나리오 별 경제성장률	2030년까지 남/여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유지된다고 가정		
	2010년 수준으로 남/여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유지된다고 가정	2030년까지 남/여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50% 감소한다고 가정	2030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
2013	4.0	4.5	4.9
2015	3.4	3.8	4.2
2020	2.9	3.4	3.8
2025	2.3	2.8	3.3
2030	1.7	2.2	2.7

자료 : OECD
 주 : 「Closing the gender gap : Act now」, 2012. 12

4.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과제

- 출산율을 높여 고령화 속도를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저성장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인구의 확보 및 여성 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필수적임
 - 경제활동인구 감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아동 양육 지원 확대, 여성 고용 안정성 제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활성화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전문분야 맞춤형 취업 지원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게 경력과 관련된 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취업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재취업 기회 제공
 - 대학과 기업 및 정부 기관의 협력을 통해 대졸 이상의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서 재취업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
 -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연근무제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함
 - 근로계약 때 약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그만큼 휴가시간으로 적립하는 이른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도 근로시간과 형태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양육 시기에 근로 시간을 줄여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 기혼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킴
 -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맞벌이 부부 우대 공공 보육 시설 마련 필요

9) 2012년 7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총무처(GSA), 인사관리처(OPM)를 중심으로 원격근무를 촉진하면서 연방공무원의 5%(102,900명)가 원격근무에 참여중이며, 영국은 국가공무원의 20%(10만 명), 지방공무원의 50%(130만 명) 이상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어 있음.

- 직장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확대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해 육아부담 완화
-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법규를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 현재 성차별금지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 남녀 간 고용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녀 간 직종분리 현상이나 임금격차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근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파트타임에 대한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한계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파트타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 참고 문헌 >

1.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2012
2. 류연규,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5
3. Ahn, Namkee, and Pedro Mira.,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2002
4. Da Rocha, J. M. and Fuster, L., “WHY ARE FERTILITY RATES AND FEMALE EMPLOYMENT RATIOS POSITIVELY CORRELATED ACROSS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7, 2006

<별첨>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모형

1) 최소자승법(OLS) 회귀 분석

$$\text{출산율}_{it} = \beta_0 + \beta_1 \ln \text{일인당 } GDP_{it} + \beta_2 \ln \text{교육}_{it} + \beta_3 \text{여성경제활동참가율}_{it} + \beta_4 \ln \text{남녀임금격차}_{it} + \epsilon_{it}$$

2)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text{출산율}_{it} = \beta_0 + \beta_1 \ln \text{일인당 } GDP_{it} + \beta_2 \ln \text{교육}_{it} + \beta_3 \text{여성경제활동참가율}_{it} + \beta_4 \ln \text{남녀임금격차}_{it} + \mu_i + \epsilon_{it}$$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4	1.9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6	-0.1	-0.2	-0.1	-0.6	-0.3
일본	-0.6	-7.3	-2.8	10.4	0.6	2.0	6.1	-0.9	-3.7	0.2	1.6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0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5월 9일	5월 1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81	1.93	0.12%p
	엔/달러	77.66	79.37	85.86	98.92	102.27	3.35¥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157	1.2932	-0.0225\$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5,083	15,276	193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4,191	15,096	90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55	2.56	0.01%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91.0	1,114.5	23.5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79.5	1,971.3	-8.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5월 9일	5월 1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6.11	94.26	-1.85\$
	Dubai	104.89	92.89	107.99	101.25	99.24	-2.01\$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1.45	286.53	-4.9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3.1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5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2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1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